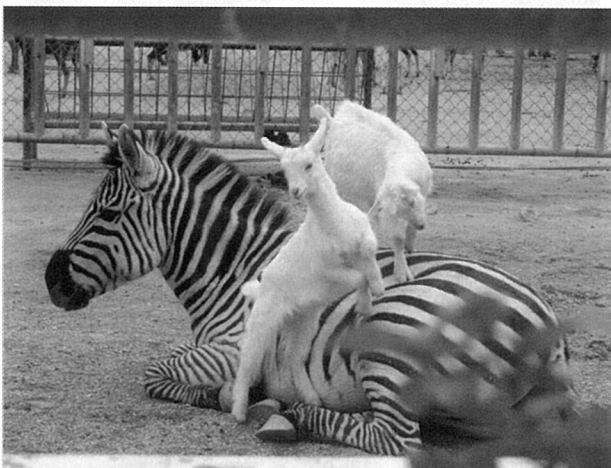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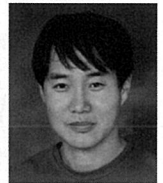




협력하는 동물들, 따로 노는 인간들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구성원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초식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수많은 식물들, 그리고 육식동물들에게 희생당하는 초식동물들, 그 동물들은 다시 비교적 짧은 생애 후 땅으로 돌아가 식물들의 영양분이 된다.

태양이 만든 구름은 비가 되어 땅을 적셔 식물들을 키우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 대기를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운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 무생물들은 서로 한시도 협력하지 않으면 광대한 은하계에서 아마도 유일할지 모를 이 지구라는 생명의 행성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의미로 '가이아'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 흐름에 역행하여 위험하게 사는 동물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구상의 동식물들을 꾸준히 멸종시키고 있고 숨 쉬는 대기를 교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변화의 폭이 아직은 자연이 감당할 정도인지 눈에 확 들어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린 우리가 저질러 놓은 온갖 해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 살아있는 지구를 단번에 죽음의 행성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상 가장 위험한 동물은 사자도 코끼리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간을 제외한 타 동물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는 걸 보면 일순 경이롭기까지 하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악어와 악어새(물떼새 계통)의 관계를 보자. 비록 이빨이 날카로운 악어지만 그의 등에 올라탄 악어새는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다가가 악어 이빨에 끼어있는 고기조각을 뜯어먹는다.

새는 좋은 먹잇감이 있어서 좋고 악어는 이빨 사이가 깨끗해 저서 좋다. 악어가 악어새를 일부러 안 잡아먹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악어새가 악어 조련사처럼 악어의 입을 다물 줄 아는 요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까마귀나 까치도 곤잘 소나 시슴 등에 올라타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준다. 이보다 좀 더 미물로 내려가



고 상호 협력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선 동물들이 건기에 대 이동을 한다. 그리고 여행의 종착지에서 물살이 거친 거대한 마라 강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선 커다란 크로커다일 악어들이 이미 몇 달 전부

터 배를 비우고서 얼룩말과 누 떼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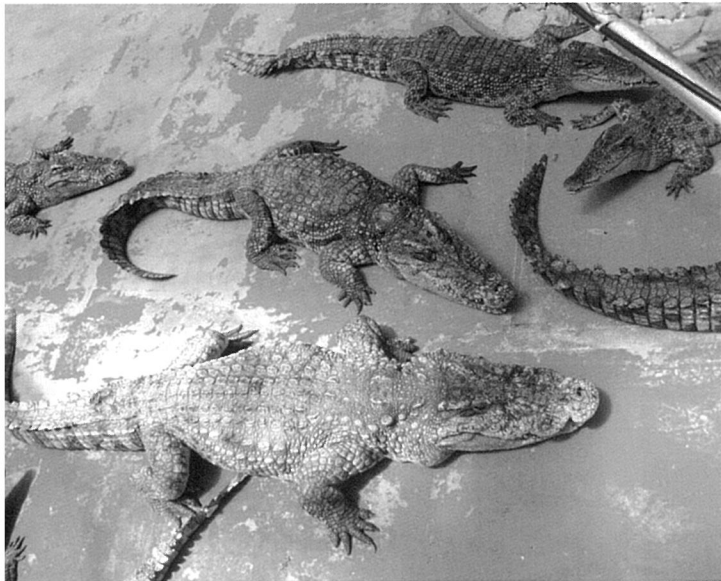
강물 앞에 도착한 누 떼는 위험한 물살과 눈만 빼꼼 내놓고 바라보는 악어들을 보고 일시 행군을 주춤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선두그룹의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그 강물로 뛰어든다. 만일 무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대로 희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아마도 악어들이 배부를 때까지는 그렇게 용기 있는(?) 누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계속 먹혀야 나머지 무리들의 도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누들은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나머지 전체 무리들도 그가 먼저 뛰어 들면 그를 따라서 한꺼번에 물로 뛰어들어 그의 주위를 둘러싼다. 물론 그가 맨

먼저 악어에게 희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든 라이언 일병과 그를 거침없이 구하러 달려가는 무리들, 그들에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한해에 적어도 두 차례씩 이상은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자연은, 이 지구는 우리가 귀에 당도록 배워서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생태그물로 상호 엮여

져 있는 생태계이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누가 일부러 안 가르쳐 줘도 그 질서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순응하는데 유독 잘 배운 인간만은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사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fin~ ▽



서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가 있다. 식물에 붙은 진딧물들은 개미에게 달콤한(?) 자기 배설물을 제공하고 개미는 그들을 침입자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준다.

살아있는 진딧물은 원래 개미의 먹이가 아니니 이들 관계는 아마도 생물사에서 우연히 형성돼 면면히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라는 것도 이들 관계와 사실 하등 다를 게 없다. 누군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특이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재밌거나 집단에 이득이 될 때 다들 따라하게 되고 세대를 거쳐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문화라고 한다.

진딧물과 개미들 관계도 이종 간에 형성된 오랜 문화현상인 것이다. 단지 인간의 문화가 대개 전쟁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단기적인 것인데 반해 동물들의 문화는 주로 평화적이

